

# 회고록 망언 전두환 이번주 고소한다

## 헬기사격 증언 조비오 신부·피터슨 목사 사탄으로 폄훼 5·18재단, 가족 위임 받아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키로 '5·18 숨은 영웅' 故 안병하 전남도경국장 가족도 검토

5·18관련 망언이 담긴 회고록이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범정에 세우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조만간 고(故) 조비오 신부·피터슨 목사 가족의 위임을 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사자명예훼손 혐의)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5·18의 숨어있는 영웅이자 민주경찰로 알려진 고(故) 안병하 전남도경국장 측도 "시민들에게 충부리를 겨눌 수 없다고 주장한 아버지를 전두환이 '무능한 경찰이자 5·18 학살을 불러온 치안책임자'로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조비오신부·피터슨목사 가족 "전두환 고소" = 5·18기념재단은 조비오 신부·피터슨 목사 가족에게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명확한 처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번 주 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5·18재단 측은 "신부로 활동 중인 조비오 신부의 조카와 미국에 거주하는 피터슨 목사의 부인 모두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훼손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사를 5·18재단에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조비오 신부는 지난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정확히 1980년 5월 21일 낮 1시 반부터 2시 반 사이 호남동 성당 주변 상공에서 '드르르, 드르르' 소리가 났고, 공중에서도 발포한 (발발과) 소리가 들렸다"고 수차례 증언했다.

1980년 5월 선교사로 광주에 있었던 미국인 피터슨 목사도 지난 1994년 펴낸 '5·18 광주사태'라는 체험기(서적)를 통해 "21일 오후 3시15분쯤 헬기가 거리에 있는 군중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헬기 사격 목격담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그러나 회고록에서 조신부, 피터슨 목사의 증언에 대해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은) 악의적 왜곡이다. 그들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

이 지목사 아니다"고 비난했다. 5·18기념재단은 "전일빌딩에서 확인된 헬기사격 총탄흔적만 보더라도 전두환의 주장은 거짓이고, 거짓 주장으로 두 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으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변호사들의 자문이 있었다"며 "전두환 회고록에는 5·18을 왜곡하는 내용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피해자 특정 등 현행법으로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 안 된다"안병하 전남도경국장 측도 = 5·18 당시 "시위 진압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라"는 지시를 반복한 안병하 전 전남도경국장 가족도 전 대통령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과거사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2007년 발간)는 안 전 도경국장에 대해 "군은 공수부대에 과격진압을 명령하는 지시를 내렸던 반면 안병하 전남도경국장 측은 시위진압을 하면서도 군과는 다른 지시를 내렸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안 전 도경국장이 (시위 중)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지 않도록 할 것,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등을 경찰

## 조선대 개방이사 추천 교육부에 요청키로

이사회 결정... 대자협과 갈등  
조선대가 개방이사 추천을 교육부에 요청키로 했다.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가 위임을 요구해온 '개방이사 추천권'을 교육부에 넘길 것으로, 이사회와 대자협 간 강대강(強對強) 대립·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오는 27일 이사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 개방이사 추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선대는 지난 20일 열린 89차 이사회에서 담보상태에 있는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 교육부에 추천을 요청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이사회는 이날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시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는 조선대 규정(정관 24조 3)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사 7명 중 5명이 찬성해 통과됐고 대학측은 이사회 의결이 이뤄진 만큼 24일 교육부에 추천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이사회(정원 9명, 현 이사 7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 상태로,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명의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이사회는 이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5명을 추천했지만 대자협은 '총집적 추천위원으로 볼 수 없고, 구경영진속 이사에 편중된 추천'이라며 '개방이사 추천권'을 위임해줄 것을 이사회에 요구하며 맞섰다.

일각에서는 임시 이사 파견과 관련, '응답자의 51.6%가 대학구성원들과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사록조사 등을 들어 향후 학내 갈등이 극단적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조선대 교수 52% "임시 관선이사 반대"

교수평의회 490명 대상 설문  
75% "이사회 활동 불만족"  
조선대 교수들의 절반 이상이 교육부의 임시 관선 이사 파견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수평의회가 최근 차기 이사회 구성 방안에 대해 각 단과대학별 교수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6%가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해서는 안되고 대학 구성원들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0.2%는 '파견되는 것도 (이사회 부준재 사태 등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수평의회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 조선대 교수 49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화면접·이메일조사 등의 방법으로 차기 이사회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여론조사결과, 응답 교수들의 75.1%는 지난 2월 25일 임기가 만료된 2기 이사회 활동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했고 25.9%는 '법인 전입금 확대 등 대학 재정 확충 기여'를 불만족한 점으로 꼽아 가장 많았다.

임기가 끝난 기존 이사진 주도로 신임 이사회가 구성되는 데 대해서는 94.3%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가 요구하고 있는 '국민공약형 이사제'와 관련, 응답자의 39.0%는 '대학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공공부문 추천 인사에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시·도지사 등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27.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총동창회장을 공익이사에 포함하는 데 대해서는 50.6%가 반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화나장 행복한 금남로의 봄 '토요일에 만나는 문화나장'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개막했다. 주말을 맞아 금남로를 찾은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프린지페스티벌은 12월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에 따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광주 광산울)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

## 갓길 불법주차 트럭에... 추돌사고 3명 사망

23일 새벽 여수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16분께 여수시 소호동 소재 마을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박모(22)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1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객 4명이 병원에

## 무안군수 수뢰 혐의 추가 기소

김철주 무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의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인사청탁과 공사편의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술 마신 교고생이 엘리베이터서 이웃집 아주머니 주먹질

○술을 마신 고등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서행.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인 정모(17)군은 22일 오전 7시25분께 광주시 북구 오지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타고 있던 박모(여·46)씨에게 욕을 하며 폭행한 혐의. ○경찰은 "고등학교생 정군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것 같다"며 "정군은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고있던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도 모자라 옆에 있던 박씨의 아들(20)까지 수차례 폭행했다"고 설명. /전은재기자 e6j621@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6타경 5252	1	완도군 완도읍 정해진 남로35번길 14-17 4 8.6㎡ 부속건물 화장실 1.0㎡ 제시외 현관 등 12.5㎡ [제시외건물포함]	단독주택	22,067,300	일괄매각, 목록 1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75-9 102㎡	대	22,067,300	-건물일부및제시외건물일부인접지 지상소재, 창고
2016타경 51149	1	진도군 진도읍 통외리 757-2 397㎡ [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 허가백36/66지분전부]	대	32,384,68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허용, 제시외건물포함 [단, .36/66지분]
		진도군 진도읍 옥죽길 48-1 45.28㎡ [공부상선적, 일반건축물대장상면적상임] 부속건물32.72㎡ [허가백36/66지분전부] 제시외 창고 등 24.99㎡	대	32,384,680	
2016타경 3782	1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70 499㎡	대	3,792,400	현황비닐하우스
		해남군 황원면 월호리 6-4 135㎡ [타인소유 건물소재]	대	2,455,4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허용, 제시외건물제외
	2	동소 6-5 176㎡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물건번호2: 제3차경유증, 최성인지분3/7전부]	전	7,832,000	제시외건물제외
		진도군 임회면 봉상리 139 979㎡	대	7,832,000	제시외건물매각제외
2016타경 4150	1	완도군 금암읍 화북리 642 865㎡	전	11,24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642-1 1009㎡ [분묘소재, 과수원임대임용중] [물건번호1: 행지, 경계불명확함요]	전	11,244,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6타경 4303	1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산40-59 953㎡ [김연 임야]	임야	1,526,400	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신지분2/9전부, 제시외건물매각제외		1,526,400	
2016타경 5320	1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264 1382㎡ [소유미상수목소재, 알부도로, 인접지와경계불명확요시측량요]	전	10,36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695-1 301㎡	대	3,913,000	인접지와경계불명확요시측량요
2016타경 5450	2	동소 714 1071㎡ [분묘소재, 인접지와경계불명확요시측량요]	전	3,913,000	필요시측량요
		진도군 의신면 만갈리 931-1 849㎡ [인접지]	전	6,537,3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 450-1 810㎡	전	6,537,300	필요시측량요
2016타경 51149	2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 450-1 810㎡	전	3,07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현황일부도로
		현황일부도로		3,078,000	
2017타경 56	1	해남군 화산면 평호리 321-3 5371㎡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행지]	전	43,774,920	일괄매각, 목록 1.2
		동소 321-4 12629㎡ [분묘소재]	임야	43,774,920	인접지와경계불명확요시측량요
2016타경 3935	1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산195-6 지1층1343.34㎡ 1층1068.68㎡ 2,3층각1087.30㎡	의료시설	3,008,822,720	정화조매각포함, 현황지층일부침수
				3,008,822,720	
2016타경 3782	3	완도군 신지면 월갈리 1226-6 820㎡	양여장	18,040,000	제시외건물매각제외, 현황일부도로
				18,04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행히 될 때에는 매수신청자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행할 경우로 인한 원상복구 의무발생 경우 매수인 미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지가 민선지방행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권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이 매수분쟁으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 진행되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매각대금의 액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 매각기일 : 2017. 5. 8. [월] 10:00
- 매각결정기일 : 2017. 5. 15. [일] 14:00
-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법 1층법정
- 매각방법
  - 일괄법정에 비하여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청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양분은 최고매각가격의 1%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자기인수 또는 현금 등 인수가나 지급보증서(계좌)를 제출한 문서(양행 부서서 제출)를 포함한다.
  - 2인 이상은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제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공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저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 매각허가 및 담보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은 당일에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매각결정기일에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 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이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이 실시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 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장권, 기입부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전등) 및 지장권이나 기입부등은 납부보증금의 최종액과 대금지급기한이 경과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증서 지시를 첨부하고, 원순주택과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박하여 준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주의사항
  - 매각청 주축 또는 참가신청에 최종승인의 지장권 등이 설명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등본접수신청을 하고 그 후 주축 또는 참가신청을 하는 것 이외에, 사외 3등본접수신청을 먼저 접수하는 것 외에는 그 입찰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최종액과 대금지급기한이 경과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증서 지시를 첨부하고, 원순주택과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박하여 준다.
  - 특별매각조건에 의하면 매각결정일에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입찰신청에 노후한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불응하더라도 신청금액도 동등하고 오기치 버려야,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하는 사외인 입찰신청을 행하면 위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원에 제정될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금액을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된다. 단, 도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거나 소양면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 공고된 결정내용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집행하지 못한다.
  - 선례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추후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계발문의 공고나 법원에 비하여 매각결정일에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기일 공고의 의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판공공고] → 민원경제정보센터 ※ 민원정보 홈페이지에서 대법원 홈페이지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과도 별첨하여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후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이유로 매각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신청 청구 등 할 수 없으므로, 조상같은 물권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제시된 매각기일 공고나 비하여 매각결정일에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최성관